〈대림절 첫째 주일〉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양대

※영 광 송 /

※성시교독 / 115. 구주 강림(1)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400장

대표기도 / (1부) 강현주 권사　　(2부) 윤결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누가복음 8:22~25**

찬　　양 / (2부) 시온 찬양대

말　　씀 /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 전종남 목사

(Where is Your Faith?)

찬　　송 / 542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449장, 420장　　기　　도 / 임진수 안수집사

성경봉독 / **레위기 27:34**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씀 /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계명."**

(The Commandments God Gave on Sinai Mt.) / 전종남 목사

■ 저녁 7시 0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436장, 456장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2:11~17**

말　　씀 /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 전종남 목사

(Live as Servants of God.)

■ 주일~금 새벽 5시

미가 강해 / 전종남 목사

■ 저녁 8시 40분

인도 / 권유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김춘자 권사	이상혁 장로	전복희 권사

예배 위원

11월	1부	2부
안내	김춘자	유병용 황하연 김영화
헌금	강현주	최승태 김영덕B 유경순 전복희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김명순 김신영 김정순 김춘예 윤결태(김연주) 채영애 최승태(김상금) 최인숙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문상필 박광연 심상현 윤결태(김연주)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혁(송미숙)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승태(김상금) 최인숙 홍우표(윤명란) 무명(1명) ***심방감사:** 윤성태(강현주) 윤진태(이기숙)
추수감사	김선정 김영덕B 심주원
선교헌금	윤결태(김연주) 최승태(김상금) 3여
교육헌금	김명순 김정순 김춘자 윤결태(김연주) 최인숙 ***부서헌금:** 유초-중고
주일헌금	이상미 채영애 최환철 무명(1명)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11.22.)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 (눅8:1~3)

전 종 남 목사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도 주님을 따르며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엡2:10).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본받게 됩니다.

1.그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섬겼습니다(2절).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모두 악귀에게서 놓이거나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힘겨울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전15:10)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을 섬깁시다.

2.그들은 주님 안에서 한마음으로 섬겼습니다(3절).

여인들의 신분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귀족이 있었는가 하면, 평민이 있었고, 아주 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족초청의 날에 어떤 성도는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고, 어떤 성도는 안내와 접수를 맡고, 또 어떤 성도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 됨의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서로의 수고에 감사하며, 일이 많은 사람의 짐을 함께 질 때, 성령께서 주신 **<하나 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엡4:2-3).

3.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꾸준히 섬겼습니다(눅8:3).

여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것을 채웠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섬김은, 십자가 옆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마27:55-56, 눅24:9-10).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봉헌한 사랑의 쌀도 이웃 교회 성도들과 나누는 양식이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도 따뜻한 한 끼를 나누고, 전화 한 통으로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고, 선교를 위해 예물을 드림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한마음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